

# 韓·中·日의 民族教育 比較\*

沈 汝 澤

## 目 次

- |                               |                       |
|-------------------------------|-----------------------|
| I. 序                          | IV. 國家와 관련된 民族教育의 當爲性 |
| II. 韓國民族의 性格과 位置              | V. 結 言                |
| III. 아시아 3 個國(韓·中·日)의 民族主義 性向 |                       |

## I. 序

民族教育의 論旨을 펼치기에 앞서 民族에 대한 概念設定이 必要하다. 民族이란, 居住하는 空間이 같고 使用言語가 同一하며 生活樣式 文化 歷史 등을 같이하는 人間集團으로, 歷史라는 時間을 通하여 形成된 生物學的 意味에서의 人間集團을 意味한다. 그러나 個個의 民族이 그 나름 대로의 生存狀況과 그에 따른 問題點을 안고 있기 때문에 民族의 概念 定義에 의하여 一律的으로 民族 또는 民族主義의 性格을 말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特殊한 歷史性으로 因하여 다른 나라와 달리 民族과 民族의 產室인 國家의 關係가 現實的으로 兩分되어 있기 때문에 國家의 形成이나 國家의 消滅史라기 보다는 民族의 興亡史라는 論旨가 成立된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우리의 歷史에 있어서는 國家觀에 대한 觀念보다는 民族觀, 즉 民族主義의 內음이 더 짙어질 要素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現實的 問題를 차치하더라도 우리의 경우 國家觀의 昂揚이나 民族性의 高揚은 하나의 길로 되어야 할 善한 當爲를 가지고 있음을 周知하는 바이다. 흔히들 民族主義의 正道를 提示하거나 그 깊이를 더하는 理論이 난립하는 중에도 民族性의 由來에서 研究의 始發點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서도 問題는 提起된다. 예를 들자면 檀君의 自손으로서 單一民族임을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나, 文化的으로 볼때 좀 미묘한 것은 單一民族이라는 점이 우리의 우수성을 표시하는 말로 一般的으로 理解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러 민족이 모여 文化圈을 形成할 경우, 그 文化는

\* 이 論文은 1982年度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생태계에 있어서 거미줄처럼 복잡해질 때에 그 生存力이 強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느 쪽이 우수성을 말하는 것인가는 쉽게 단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民族主義에 立脚한 教育을 便宜上 民族教育이라 칭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民族主體性 確立의 氣運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具體的 움직임은 反民族的 要素의 除去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함이 衆論이다. 나라의 主權을 喪失한 民族에게 主體性이 剝奪되듯 日帝 殖民地教育이 우리 民族의 主體性의 否定을 뜻한다는 것은 自명한 史實이다. 아울러 같은 單一民族의 後裔라 하더라도 그 理念과 制度에서 이미 分化되어가는 共產主義者들은 民族이 걸어갈 바른 길을 拒逆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反民族的 要素로 看做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舊習이나 舊說을 되풀이하는 作業이 아니라 民族教育의 當爲性과 그 向方을 오랜 歷史와 傳統을 가진 文化民族이라는 바탕 위에 올려 놓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歷史的 傳統의 承繼를 위하여 歷史意識을 고쳐시키는 일과 民族文化의 올바른 認識을 必要로 하는 일들에 대한 考察이다. 또한 우리 民族이 우리 民族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慈悲 侮蔑 等の 感情을 根絶하는 것도 重要한 일이며, 民族의 自尊이나 榮光 繁榮에 대하여 많은 作業을 행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重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民族에 대한 폭넓은 理解인 것이다. 어디에서 어떻게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데에서의 先決作業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당금의 現實을 直視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民族主義와 民族教育이라는 論題에 대한 研究는 空轉될 우려와 아울러 자기비하와 侮蔑의 수레바퀴를 달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II. 韓國民族의 性格과 位置

露日戰爭에서 日本이 勝利하자 孫文은 슬회하기를 有色人種과 白色人種과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을 가졌으며 여기에 적극적이고도 主體的인 認識과 判斷을 통하여 民族運動을 展開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民族主義는 새로이 出現한 指導者들이 民衆에게서 불러 일으키는 大衆의 自覺意識<sup>1)</sup>을 말하는데 오늘과 같이 그 問題가 深刻하게 擧論된 적은 없었던 듯하다. 즉 民族主義라 함은 精神的 文化的 歷史的 傳統의 由來로 傳來되어 오는 民族의 獨自의 特性과 矜持를 政治的 理念에 反映시켜서 이를 永久히 維持시키려는 民族의 理念인 것이며, 여기에 民族教育에 대한 時代的 要請이 存在하는 것이다. 民族教育은 장래의 民族의 生存과 直結된다고 할 만큼 그 重大함은 재삼 強調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이며 歷史的으로 地政學的으로 政治經濟 社會 文化 等으로도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韓國·中國·日本의 民族教育을 比較하

1) 李東植, 韓國人의 主體性과 道, 一志社, 1974, pp.25 - 26.

는 일은 앞으로의 民族生存의 方向과 進路를 設定함에 있어 필수적인 課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研究를 위한 先決作業으로서 韓國民族의 性格과 그에 의한 位置를 把握하는 일은 매우 重要한 것인데 이는 民族教育의 當爲性과 歷史에 비친 民族教育을 通하여 向方을 設定하는 過程과 그에 따른 民族性 涵양 및 昂揚의 길까지도 밝혀 줄 것이다.

### 1. 韓國民族의 性格

흔히 韓國 民族의 一般의 性向이 自己卑下의 自己抹殺의 歸着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論議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論議답지 않은 論議는 空轉될 뿐만 아니라 매우 有毒하다. 왜냐 하면 이러한 論議는 過去에서 現在로 現在에서 未來로 이어지는 폭넓은 思考體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한 단면만을 照明하여 비로되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過去를 돌이켜 볼 때에 그 옛날 우리의 先祖들은 中國大陸의 北部 혹은 山東 等地에서 冒險과 流浪을 계속하면서 아시아의 동쪽 끝인 한반도까지 이르렀다. 그 經路에 따른 劬한 苦難은 前述한 否定的 思考方式을 無色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過去에 中國·蒙古·日本 等에 의한 侵略行爲에 의해서 오는 風波와 苦難의 歷史 속에서도 韓國民族은 죽지 않고 살아서 곳곳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코 하나의 論理를 위한 逆說이 아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고난이 겹치고 겹칠 때에 消滅되지 않은 民族이란 世界史를 通하여 살펴볼 때에 그 類例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點에서 그러한 것이다. 이것은 韓國民族에서 강한 主體性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充分히 示唆하는 것이다. 모든 나의 행동이 나의 選擇이기 때문에 잘되거나 못되거나 나의 책임이라는 自覺의 상태를 主體性<sup>2)</sup>이라 한다면 解放以後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世紀末의 風潮는 그 方向과 程度를 달리해야 하는 必要性을 排除할 수 없다. 自己를 尊重하는 마음이 個人에 內在한다면 이의 主體性의 中心은 確固하여 흔들리지 아니할 것은 自明한 事實이다. 民族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民族의 個體가 모두 그러하다면 民族의 '일'은 확고부동한 正道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利己主義 拜金主義 혹은 自己侮蔑感으로 蔓延된 社會에서는 이를 克服하는 하나의 契機가 절실하게 要請된다. 특히, 世紀末의 風潮가 우리를 混亂스럽게 하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契機를 우리는 가끔 만나게 된다. 1890년의 東學革命을 비롯하여 8·15의 解放과 4·19의거 등은 이러한 계기로써 存在하여 作用力을 行使하여 왔었다. 分析하건대 高麗時代의 僧侶와 貴族이, 李朝時代의 兩班과 士大夫가 각각 그 社會의 中心的인 構成을 하였다는 事實에서 東學革命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民族主體가 少數에서 多數로, 즉 官僚체제에서 대중으로 옮겨가게 한 커다란 作用力이었기 때문이다. 解放이나 4·19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의 主體性 確立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過

2) 李東植, 前揭書, p.23.

去를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過去를 理解하고 記憶해 두지 않으면 現實에 있어서 아무런 뿌리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未來를 조망하지 못할 것이 自明하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未來가 過去의 病弊에 感染됨을 막기 위해서 現實을 直視하는 힘은 당연히 길러져야 한다.

## 2. 韓國民族의 位置

李朝時代에는 中國과 日本에, 植民地 時代에는 주로 日本과 西洋에, 解放以後 美軍政과 6·25 를 거치는 동안에는 주로 西洋의 列強 등에 대해서 敗北意識과 그러한 感情을 기르게 되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感情의 殘滓는 外現하지는 않으나 內部 毒素로 자라나 우리의 主體性을 저해하는 要因이 되어왔다는 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毒素를 除去하는 큰 일로서 東學이나 解放 및 4·19 등이 存在하였음을 아울러 알고 있다. 그리하여 韓國民族 內部的 問題는 內部에서 解決하지 못하고 外部 勢力에 依存하여 解決을 본 일이 許多함은 숨길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겨난 것들이 自己 悔蔑의 國家觀 혹은 植民史觀인 것이다. 물론 하나의 변명인 것으로 指導層과 大衆의 괴리를 들 수 있기도 하다. 즉 指導層의 外勢迎合에 힘입어 大衆을 欺해 왔다는 사실을 일컬음인데 現時點에 있어서 韓國民族은 支配層이나 國民이 二重構造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再論함도 어폐가 있는 듯하다. 韓國民族의 位置를 格下하게 하는 혹은 有害하게 하는 要素로서 흔히 日帝植民地時代를 擧論하곤 한다. 그러나 嚴密히 따진다면 예로부터 中國에 대한 事大思想이나 美國 및 西歐列強 등에 대한 동경 및 日帝에 대한 敗北意識 같은 것이 複合적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不可抗力의 既定事實으로서 看做하는 限, 韓國民族이 차지할 수 있는 位置란 찾아 볼 수 없다. 이렇듯 問題는 內部에서 주로 생겨나는 感情의 찌꺼기이기 때문에 民族主體性의 高揚은 自己를 制御할 수 있는 能力이 커질수록 韓國民族의 位置는 漸次 格上되어질 것이다.

## 3. 小 結

韓民族은 半萬年の 歷史를 통하여 무수한 侵入을 받으면서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꺾끗하게 그 正氣를 이어왔다. 侵略行爲로 일컬어지는 行爲는 일찌기 그 예를 보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實로 우리 民族이 人間中心의이며 不義 不正에 대한 배격정신을 한눈에 보는 듯 하다. 물론 이중에는 理解할 수 없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다. 中國의 侵略을 받으면서도 中國에 대하여 事大慕華思想을 길렀던 점이나 日帝의 植民地에서도 분노하는 힘보다 패배의식을 더 진하게 그리고 西歐列強에 대한 憧憬이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등인데 이것들은 現實의 韓國民族에게 타기해야 할 커다란 課題인 것이다. 前述했듯이 이러한 복합적인 作用力은 內部的 問題로서 支配層과 被支配層의 行動構造가 괴리를 일으킨 結果일 수도 있는 것이며 이 問題를 궁극적으로

說明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構造가 形成된 社會에서 그 社會의 中心이 될 中産層을 形成하지 못하였다는 점<sup>3)</sup>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일부 學者들의 경우는 한반도라는 地政學的 要素를 들어 韓民族의 性格과 位置에 대한 變명을 羅列하기도 한다. 그러나 애써 그러한 變명을 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 過去 蒙古族에 의하여 거대한 帝國을 建設했던 元나라나 滿洲族에 의하여 建國되었던 淸나라, 그리고 많은 神話를 남겼던 希臘 등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화려했던 變명의 시기를 가졌음에도 오늘날에는 그 힘이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져서 그 명맥만을 겨우 이어가는 실정이지만 우리 民族의 경우는 半萬年의 긴 期間을 지나서 現在에 이르기까지 곳곳하게 불요불굴의 精神으로 一貫되어 왔으며 날로 國勢를 떨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한다.

### Ⅲ. 아시아 3 個國(韓·中·日)의 民族主義 性向

#### 1. 아시아 3 個國의 民族性向

人種의 偏見이나 外勢에 대한 反感을 契機로 하여 發生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民族主義는 소극적으로 外勢에 대하여 자기나라의 純粹性을 지키려는 데에 국한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는 자기나라의 영향력을 外國에 強要하고 더 나아가서는 自國의 繁榮을 위하여 다른 나라의 희생을 강요하는 帝國主義 혹은 國수주의로 發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그것은 民族中心主義가 되는 것이다. 아시아 民族國家의 民族主義에 대한 기치는 特徵的인 側面이 있다. 아시아 民族主義는 發生過程에서 보여준 계급성이 투쟁 과정에까지 연장됨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外勢에 대한 抗爭의 強度와 꼭 같이 內在的 敵에게 抗爭하는 계급성을 보여준다. 後進國 특히 아시아의 民族主義가 적색 제국주의에 感染되기 쉬운 위험성도 바로 이와 같은 階級性에서 연유된다 함은 신봉룡의 '東學思想과 韓民族主義' 라는 그의 論著에서도 피력된 바 있다. 二次大戰後에 日本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도 오늘날의 繁榮을 가꾸어 놓았으며 비록 二次大戰 後에 共產主義者들에 의하여 本土에서 敗하여 대만으로 쫓겨간 中國이지만 高所得 國家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二次大戰 後에 混亂期를 맞이한 지 얼마되지 않아 6·25를 맞이하게 된 韓國의 경우도 그 폐허와 混亂은 이루 말로는 다 할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비록 분단의 상태에 놓여있지만 世界 속의 韓國을 論할 정도로 놀라운 成長을 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이 韓國·中國·日本은 다 같이 漢字文化圈의 國家이며, 인접 국가로서 相互間에 歷史的, 文化的으로 密接한 關係에 있다. 또한 二次大戰 後 서로 비슷하게 民族教育을 重視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점에도 착안할 만하다.

3) 신봉룡, 동학사상과 한국 민족주의, 평민사, 1983, p.127.

## 2. 中國의 民族主義 性向

國民黨 政府가 대만으로 물러서기 전의 中國大陸은 그 地理的 環境으로 因하여 文化的으로 는 고립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天朝 模型의 世界觀을 形成하여 나라의 명칭도 中國이었던 바와 같이 주위의 군소국가를 모두 오랑캐(東夷, 西戎, 南蠻, 北狄)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19世紀 以後로 밀어닥치는 西歐列強의 새로운 바람<sup>4)</sup>은 原來의 生活方式 즉 그들의 固有한 思考體系를 전복시키기에 充分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西歐列強에 의해 주어진 未來像을 바라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矜持인 傳統을 간단없이 뱉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少數 指導層의 集團이 傳統과 西歐文明과의 융화를 꾀하기도 하였으나 아시아의 民族主義가 적색 제국주의에 感染되기 쉬운 危險성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으로 하여 共產黨에 부화뇌동하거나 過去의 中國을 회원하는 理想主義者가 되었을 따름이었다. 여기에서 中國은 複合構造의 統一을 보려는 努力을 시도하게 된다. 이것이 그들 나름대로 추진된 作業이 中國 固有의 因素에 대한 考究였던 것인데, 이를 일별하면 中國의 文字 言語와<sup>5)</sup> 中國의 藝術과 歷史意識과 思想과 技術 및 生活과 처세방식, 그리고 宗教에 대한 複合的인 面인 것이다. 그들의 民族性이 비록 유구한 歷史에 의하여 중후하게 形成되기는 하였으나, 이의 根底에 直觀的인 智慧가 깔리기 때문에 論理的 構造의 側面이 결여되어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으며, 그 結果로 인하여 中國의 固有因素가 現實에서는 하나의 形式으로 存在하게 됨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듯 中國의 固有因素가 파기되어가는 원인이야 再論할 여지도 없이 外部로부터의 바람때문인 것이다. 西歐의 現代的인 科學技術은 中國이 가지고 있던 오랜 傳統을 쉽게 무너뜨리게 하였고 自由民主와 進歩的인 思想 등은 오랜 시일에 걸쳐 形成되어온 中國의 政治制度 및 哲學的인 思考體系를 급변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급조현상을 막아줄 契機를 갖지 못한 것은 아니다. 5·4 運動은 그러한 계기의 한 種類였다. 그러나 5·4 運動의 結果는 오히려 中國 共產黨에게 득세의 기회를 부여하고 말았으며 결국 장 개석 政府에 의하여 대만에 그 명맥이 이어져 왔을 따름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中國은 아직은 精神的으로 미숙아의 경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에 形成되어진 것이 형식 존중 및 直觀的인 思考라 불리우는 文化일지니, 그들의 倫理와 生活方式에 있어서의 함축성은 倫理 道德的 側面에 깊이 자리하고 있어 그들의 民族性에 하나의 矜持와 자부로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中國의 中等課程 國語教科書<sup>6)</sup>에는 唐·宋 八大家를 논함에 주저하지 않으며 胡適이나 蔣經國을 다름에 있어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精神的인 지주로 내세우고 있다. 그들에 있어서 古典教育은 이미 古典이라는

4) 金東成, 中國文化史, 乙酉文化社, 1961, pp. 280 - 284.

5) 辜錫基, 東洋教育史, 博英社, 1975, pp. 77 - 102.

6) 高級中學 '國文' 第三·四, 六册, 中國國立編譯館主編, 中華民國七十年一月..

한 時代의 文化遺産으로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現實에 살아있는 活物로 作用한다는 깊이있는 民族教育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 3. 日本의 民族主義 性向

民族은 文化와 傳統의 生産者인 同時에 그것을 보관하고 後世에 傳하는 운반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韓國과 中國 日本과의 관계를 이러한 文化와 歷史라는 時間 속을 이어가는 途中的의 空間을 擴散하여 가면서 서로의 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中國에서 받아들인 것이 많다는 점은 이미 널리 인정하고 있는 事實이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 그들의 民族中心의이고 帝國主義的인 근성으로 因하여 韓國民族에게서 받아들인 많은 文化를 歪曲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한 例로서 中國(中共)과 韓國을 다룬 그들의 歷史 및 國語 教科書의 內容의 허위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教科書 歪曲 사건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國粹主義的인 단면을 如實히 살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事實상 日本의 많은 學者들이 文化 傳授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歪曲의 態度를 고집하기 어려운 時期까지 나다른 것이다.

이러한 立場들은 어느 民族에게나 있는 것으로 그 程度의 差가 問題인 것이며 日本의 경우는 客觀性的인 정규분포에서 상당히 좁은 영역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외의 측면을 살핀다면 韓國民族의 文化가 日本으로 傳來된 경우를 들 수 있다. 금속문과라든가 墓를 쓰는 方法같은 것도 韓國의 것이 건너갔다든가 韓國을 通하여 中國의 것이 건너간 사실도 그들은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들은 日本의 民族教育의 虛實을 드러내는 좋은 例라고 할 수 있다.

### 4. 韓國 民族教育의 性向

民族主義 根底에는 民族意識과 民族感情이 存在한다는 것을 認定한다면 日帝治下의 우리 民族의 意識과 感情은 어찌 되었었는가에 대한 疑問이 提起된다. 항시 民族이 危機에 處하여 있을 때에는 소수의 指導層들이 開眼을 하지 못한 農民이나 貧困層을 깨우치고 하나의 힘을 기르는 데에 앞장을 선다. 이는 비단 中國 印度와 같은 나라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民族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國內에서의 民族教育活動<sup>7)</sup>은 日帝의 植民政策 強化로 因해 소극적으로 展開되었으나 民族教育 기관에서 教育을 받은 學生들은 農民大衆의 立場을 대변하고 그들에게 世界情勢와 韓國民族의 進路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였다. 이렇듯 國內에서는 民族教育에 대한 旺盛한 意욕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중에 國外에서도 上海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樹立을 보았다. 滿洲나 沿海州에서는 무장 獨立運動으로 추진되었고 하와이 美洲 등지에서도 外

7) 車編基, 日帝下 民族教育과 植民政策의 葛藤,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pp.49 - 55.

交活動을 통한 民族運動이 展開되었다. 1920 년대는 特히 이 運動이 活潑하여 教育의 振興이 큰 目標로 내세워졌다. 그리하여 추진된 것이 民立大學 設置 運動이었으나 이렇듯 높은 教育熱과 民族愛는 日帝의 加혹한 탄압에 의하여 무산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 問題를 깊이 파고들면 하나의 맹점이 도출된다. 즉 1920 年代의 民族教育의 成長이 民族運動에 있어서 學生層의 활약에 힘입어 發展되었으며 近代教育을 받은 이 시기의 學生層이 近代意識 속에 앞장을 섰다는 것은 획기적인 事實이기는 하지만 中產層의 比호를 얻지 못했음과 애석하게도 이들의 精神的인 지주 였던 少數의 指導層들이 가졌던 유약한 實踐力 때문에 비록 하나의 꽃으로 피어 오르는 하였으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 IV. 國家와 관련된 民族教育의 當爲性

##### 1. 提 言

니버(Niebuhr)는 그의 著書인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에서 人間은 集團이 아닌 人間으로 存在할때 道德的이 될 수 있고 즉 *moral man*이 될 수 있고 社會를 이루었을 때에는 혼 자일때의 道德을 잃어버려 소위 *immoral Society*의 狀態가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集團化해 갈 때 民族間의 和合이라기 보다는 競爭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는 참으로 近來 世界各國의 民族主義든 反民族主義든 간에 國家간의 推移를 說明하는 응 축된 表現이라 하겠다. 그밖에도 人間社會의 兩面性은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데 一例를 들어 코스모폴리타니즘 혹은 四海同胞主義를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政治 經濟的으로 다른나라를 집어 삼키려는 노력을 밤낮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 다는 警句마저 나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風潮가 점차 深化되어 가는 國際社會에서 國家라 는 概念을 등에 업은 各 民族에게는 크든 작든 자신의 存續形態가 그럴듯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 는 存續의 意志가 강한 나라의 경우는 뒷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強박관념으로 하여 弱小 國家에 서는 가장 커다란 課題로 또는 두려움으로 作用을 하게 되는 것이다. 民族의 存續을 위한 메카 니즘, 좀 더 具體的으로 表現한다면 擴散을 위한 메카니즘으로서 가장 根本的이기도 하고그 이 상의 人間 個體로서의 意味를 가진 것이 바로 教育이며 그 중에서도 民族教育인 것인데 여기서 는 이러한 民族教育을 歷史的 事件을 通하여 그 必要성과 앞으로의 方向을 論할 것이다. 民族教 育의 當爲性이 여기에 內在함은 물론이다.



## 2. 歷史的 사건으로 살핀 民族教育의 當爲性

### 1) 東學革命

人間이 곧 하늘이라는 東學의 人·乃·天思想이 實踐에 옮겨진 것은 1893 년과 1894 년의 일인데 從來의 階級主義에 대한 도전일 수가 있으나 한겨울 벗기면 이것은 人間至上主義를 말함이다. 물론 人間平等도 함께 부르짖고 있었다. 東學革命의 意義는 이러한 人·乃·天의 思想이 農耕國家에서 나타나는 權威主義와 君主制 아래에서 탄생되어 일찌기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大衆들에게서 호응을 받고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反政府的인 색채를 띠고 있는 東學革命은 外勢에 영합한 정부에 의하여 탄압을 받게 되었으며 위정자들은 그들의 함정에 빠져 주변의 列強들을 등에 업은 結果로 결국 이민족을 國權의 취약성의 極限點까지 몰고 갔다는 것이다. 以前에는 無知하였던 農民들이나 그 외의 無產階層들은 이제 더 이상 無知하지도 않으며 분노할 줄 알게 되었다. 그래서 東學革命의 경우에 나타난 民族主義는 한마디로 韓民族에게만 찾아 볼 수 있는 독특한 경우이다. 즉 韓國民族에 있어서의 民族主義는 항상 위정자에 대한 불만과 그들의 무기력에 대한 울분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울분의 폭발인 東學革命을 촉자는 일시적 광분 혹은 소요내지 난리로 규정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지나치다 못해 歷史的 事件에 대한 無知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東學革命은 中國大陸에서 일어난 무수한 王朝에 의하여 數世紀 동안 침략을 받아오면서 民族意識이 잠재되어 있는 중 이즈음의 西歐列強과 日本의 外勢가 이들의 憤怒를 폭발시킨 것이었다. 이것은 日帝時代의 民族主義 運動과 좋은 對照를 이룬다. 中產層의 加勢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同—하지만 日帝때의 民族主義運動의 주요 構成員이 少數의 知識層이긴 하였지만 實踐力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며 東學革命은 實踐力이 왕성하였으나 指導層의 指導理念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이 다른 것이었다.

### 2) 日帝의 朝鮮語 教育

武斷政治에서 文化政治로 그 形式的인 탈만 변모되어가는 過程에서 日本 帝國主義는 漸次로 우리 言語를 금지시키는 政策을 시행하여 나갔고 帝國主義國家의 정책답게 日語教育의 단계적 도구로서 활용하였다. 韓國民族에게 民族教育의 빠져린 必要를 느끼게 하였던 時期가 있었다면 이 때가 가장 절실했다고 말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民族이 어려움에 처할수록 그 도도한 기상이 넘쳐 흐르기 마련이긴 하지만 이 時期에 있어서는 一連의 帝國主義的 立場과 被支配 立場을 넘어서 解放을 맞으면서 教育의 모습은 묘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日帝의 教育方式을 受容한 知識層의 그 思考方式이 民族主義의 노선을 걸기에는 너무나도 不充分하였던 것이다. 그리

하여 思考體系가 半은 日本人이 된 少數 指導層들은 소위 한글의 가·가·거·겨를 우선적으로 배우고 익히며 보급했어야 했다는 問題를 낳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弊端의 꼬리는 길게 이어져 解放 직후에 再建된 朝鮮語學會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解放直後에 再建된 朝鮮語學會가 國語教育을 전담하자 조선어 학회는 國語敎員을 養成하는 役割을 수행하는 한편 ‘初等國語敎本’ ‘中等國語敎本’ ‘한글맞춤법 統一案’ 등을 펴냈다. 그러한 敎材들을 中心으로 教育을 行하여 나갔는데 여기에서 重要한 問題는 이들이 主導해 나갔던 教育이 철자법을 위주로 해나갔다는 것으로서 最短時日내에 빠른 속도로 우리 國語를 普及하는 것을 目標로 했던 이들에게는 철자법 爲主의 教育이 매우 효과적이긴 했으나 그러한 그릇에 담기는 教育의 目標과 內容이 日帝의 教育 모델을 模寫하였다는 크나큰 실수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國語敎育의 目的이나 方法이 日帝 當時의 것을 옮겨서 적용하였다는 問題는 日帝가 自身の 帝國主義의 性格에 맞추어 殖民地의 國語敎育을 우리 民族에게 구사했다는 點을 考慮한다면 妙한 對照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支配民族의 教育目標과 內容을 被支配 民族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無批判의인 行爲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混亂은 1955년 8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國語科 敎育過程이 制定 公布되어 國語敎育은 그 정돈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國語敎育의 目的은 社會形成과 人間形成 및 文化傳達의 세 가지 機能을 갖게 되었다. 解放以後 55년까지의 10년의 期間은 공백이 아니라 오히려 有害로운 기간으로 볼 수도 있어 아쉬운 노릇이다.

### 3) 現在의 위기에 대한 一考

간략하나마 民族敎育이 國語科에서 施行되는 部分에 限해서 中等學校 敎育過程에 의한 敎具(주로 교과서)를 살필 때에 다음과 같은 위태로운 部分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① 民族敎育의 本質에 이르지 못하여 亂立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
- ② 檀君神話를 歷史化하려는 의도적 敎育이 빚는 사실과의 괴리와 單一民族이라는 表現에 대한 精確한 평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점.
- ③ 外國語 범람과 民族主體意識의 世界主義에 대한 함몰.
- ④ 과다한 外國語 敎育 風潮에 대한 國語敎育의 침식.

結論的으로 民族性을 形成할 수 있는 敎育과 現行되고 있는 中等學校 國語敎科書에서의 民族敎育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의구를 떨쳐버릴 수 없는 點으로 要約하여 지적할 수 있겠다.

## V 結 言

韓·日合邦 以後 지금까지의 韓國教育은 傳統의 繼承과 새로운 知識의 융화를 이루지 못하였음은 姑捨하고 모든 民族의 要素를 舊習으로 處斷하는 誤謬를 犯하여 왔다. 우리 自身이 社會的 適切性을 올바르게 判斷하지 못한 나머지 外來의 教育理論만을 自意半 他意半으로 계속 導入 사용하여 온 것인데 日帝 36年間의 教育方式의 殘滓가 그것이며 現在 歐美式 教育方法의 進적인 受容이 바로 그것이다. 日帝의 教育方式은 우리 民族의 主權을 侵害하고 유린하기 위한 것이며, 歐美의 教育方式은 그들이 그들 社會의 構造에 맞는 것으로서 마련한 것이었기에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알맞은 教育理論과 體系를 準備하여 그에 準한 教育을 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現時點에 있어서의 教育의 諸問題를 分析하고 그에 依한 教育計劃을 作成하여야만 우리 民族의 獨特한 環境과 條件에서 우리나라오는 民族性과 結合하여 理想的인 教育, 韓國的 民族教育의 淸사진을 提示할 수 있는 것이다. 民族의 主體性과 近代化를 외치고 있는 近來만큼 民族教育이 切實하게 要求되어 본 적은 없을 것이다. 民族主體性의 確立이라는 골자로 모아지는 이러한 論議는 一切의 反民族의 要素의 否定을 뜻하는데 本稿는 오랜 歷史와 傳統을 가진 文化民族이라는 矜持의 바탕 위에 民族教育의 當爲性과 그 向方을 추적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作業을 하는 過程에서 韓國民族의 性格과 그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先決作業으로 우리 나라와 密接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中國과 日本의 民族教育 實態를 살펴보았다. 歷史 以後로 이들과는 多方面의 交流가 있는 관계도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自國의 意志대로 民族史를 엮는 일이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것이 中國과 日本의 外侵에 起因하기도 하며 當今에도 그러한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問題性을 안고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近代科學의 힘으로 우리의 悠久한 歷史를 올바른 史觀에 立脚한 整備의 時期에 日本의 侵略으로 말미암아 그 機會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남은 것은 日本의 植民地史觀에 의한 歪曲의 歷史만을 거의 無意識의 狀態에서 받아들이고 말았던 것이다. 教育의 힘이 크면 클수록 植民地史觀의 注入式教育의 힘도 컸던 것을 알아야 한다. 근간에 蔓延된 自己卑下의 이라든가 自己抹殺의 인 측면은 반만년의 歷史上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植民地에서 解放된 以後의 現實에서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다는 것은 우리의 歷史를 되찾았다는 말과 一致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의 歷史는 現代科學이란 名目下에서 거의 새로운 研究 分析도 없이 그들의 그럴듯한 날조극에 依하여 몇몇 지각 없는 사람들의 名譽 속에서 농간을 당하고 만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民族教育의 새로운 定立이 必要하며 그것은 歷史의 再照明에 의하여서만 可能한 것이다. 이런 見地에서 民族教育의 向方을 上記와 같이 더듬어 보았으며 앞으로 모든 일은 自

國의 意志대로 행동할 수 있는 力量을 기르는데에 民族教育이 그 있을 자리에 位置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民族教育이 國語科教育에서 施行되고 있는 部分에 限해서 中等學校 全學年 教材를 比較 分析하여 國語科教育을 통한 民族教育의 實態를 살핌으로서 未來의 民族教育을 展望해 보았다.

## 參 考 文 獻

- 1) 김득광: 韓國思想史, 南山堂, 1963.
- 2)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71.
- 3) 民族文化研究 第一號,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 4) 民族教育의 史的考察 創刊號, 創作과 批評社, 1976.
- 5) 李東植: 韓國人の 主體性과 道, 一志社, 1974.
- 6) 金東成: 中國文化史, 乙酉文化社, 1961.
- 7) 近代民族教育의 展開와 葛藤,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 8) 車錫基: 韓國民族主義教育의 研究, 進明文化社, 1978.
- 9) 신복룡: 동학사상과 한국민족주의, 평민사, 1983.
- 10) 車錫基: 東洋教育史, 博英社, 1975.
- 11) 마틴 카노이: 金快相譯, 教育과 文化的 植民主義, 한길사, 1980.
- 12) 중학교 '국어' 1.2.3 학년 과정, 대한민국 문교부, 1984. (현행)
- 13) 高級中學 '國文' 三·四·六册, 中國國立編譯館主編, 中華民國七十年一月.
- 14) 中學校 '國語' 一·二·三卷, 日本學校圖書 株式會社, 昭和五十六年
- 15) 洪寅杓: 中國民族性研究, 乙酉文庫, 1975.

**Summary**

**A Comparison of National Educ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Shim Yeo-taek*

Much research concerning nationalism and national education has been carried out so far. But it has been too theoretical and has never had any practical value that contributed anything to domestic educational theory.

In addition, both democracy and national education are being discussed in vain, because most of the researchers have made the mistake of persisting in their own opinions before they researched, some basic premises in this field.

This paper is intended to help future researchers by suggesting 5 basic premises related to the above matters as follows:

- 1) to understand the real state of Korea's neighbouring countries
- 2) to analyze Korean national consciousness — mainly to search for the negative aspects of it.
- 3) to set up new educational systems as well as to reflect on the educational systems introduced from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4) To arrange a type of education which can help create a middle class — to review the Donghak Revolution and Chosun language education precipitated by Japanese Imperialism.
- 5) to have a wide understanding and affection for the Korean race based on the 4 items mentioned above.

3 types of national language textbooks for secondary schools of Korea, China and Japan have been surveyed as a plan for promoting the racial characteristics. With the result that practical curriculums should be arranged and carried out in the textbooks. This is a suggestion for action which should be taken because of the future growth of knowledge.